

중국 환구시보를 통해 본 사드*

권 운영**

<목 차>

1. 서론
2. 환구시보와 국제 관계
 - 2.1 환구시보
 - 2.2 환구시보 속 국제관계
3. 기사의 특성
 - 3.1 시기별 특성
 - 3.2 논조의 변화
4. 결론

1. 서론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보도된 후,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앞장서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의심하면서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심하게 반발했고, 한국 내에서의 반발 여론도 매우 거세게 일어났

* 본 논문은 2017년 6월 10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주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일대일로와 사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했다.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몇 년간 쌓인 부정적 감정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다. 이렇듯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적·경제적으로 대치되고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 등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최대의 위기라고 할 만큼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 성주에 사드 부지를 내준 롯데는 중국 내 롯데마트의 감사(監査) 등을 핑계로 강제 휴업을 지시받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압박은 물론 강소성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퇴출하라는 거센 반발까지 겪게 되었다. 여기에는 바로 중국 언론 매체들의 자극적인 보도가 한 몫 했는데 그 중심에 환구시보가 있다. 우리나라 언론 역시 인민일보나 신화통신이 아닌 환구시보의 보도를 최우선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환구시보에서는 이를 어떻게 기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우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의 최근 기사이다. 그중에서도 논조를 명확히 살필 수 있는 환구시보의 사설(社論)과 논설(論壇)을 위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사의 시기별 논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외에도 사드와 관련된 1면 기사가 있다면, 채택해서 살펴봄으로써 사드 배치 등 중국의 한국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환구시보와 국제 관계

www.kci.go.kr

환구시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민일보가 주관하여 출

관하는 국제 뉴스 신문이다.¹⁾ 그런데 분명 인민일보와 마찬가지로 기관지이기도 하나 인민일보와는 다른 성격의 언론매체이다. 환구시보를 어떤 매체로 봐야할 것인지는 유상철 중앙일보 기자가 저널지에 쓴 <환구시보의 정치학> (2011년, 《관훈저널》)과 <언론인이 본 중국언론: '환구시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1년, 《동아시아브리프》)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1 환구시보

환구시보가 창간된 것은 1993년 1월 3일이고 실제 창간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외국의 여러 선진 경험을 중국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부에 근무하는 많은 기자들의 보너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민일보를 통해서 소화하기 어려운 주제의 기사를 환구시보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기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한 목적이 강하다.²⁾ 게다가 무엇보다도 환구시보는 중국의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상업성이 강한 신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보다 많은 인민을 들끓게 하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업성을 극대화해서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환구시보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환구시보의 대다수의 기사가 세계 각지에 나가있는 특파원 기사의 형식을 갖는다는 것이다.³⁾ 그간의 인민일보 하달식의 기사로는 수요에 따를 수 없으므로, 국제부 기자, 해외 특파원,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서 보다 현실감 있고 생생한 보도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환구시보의 기사만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환구시보가 일반적인 기관지라면, 헤드라인을 지금처럼 자

1) <http://www.baidu.com> 의 환구시보 설명 참고.

2) 유상철, <언론인이 본 중국언론: 환구시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브리프》 2011년 Vol.6, 71쪽.

3) 유상철, <환구시보의 정치학>, 《관훈저널》, 2011년, 181쪽.

극적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언론매체 관리기관인 국가신문총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 등에서 표면적으로라도 제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피하고 상업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드러낼 수 없는 속내를 환구시보를 빌어서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인민이 가장 환호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상업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자극적 심산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환구시보는 매일 약 16페이지, 적제는 8페이지의 신문을 발간하고, 이후 스캔해서 인터넷에도 올린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기사 내용은 모두 직접 “환구시보전자판(環球時報電子版)”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시기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핵 제5차 실험 이후이자,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인 가장 최근의 기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쉽게도 한국에서 환구시보 기사를 검색할 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하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에는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고서 부분적으로 삭제되는 기사도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구시보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드라인 때문이다. 요즘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종이 신문을 보는 풍토는 거의 사라졌다. 신문을 들고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겠지만, 인터넷처럼 빨리 훑어 지나갈 때는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환구시보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신문보다도 자극적인 헤드라인, 즉 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제만 보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직설적이고 자극적이다. 다음은 환구시보가 국제 사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만큼 기사에는 어떤 국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4) 주로 參考報 사이트에서 업로드 되는 환구시보를 다운받아 살펴보았다.
(http://www.cxqxbao.com/huanqiushibaodianziban/list_1.html 참고)

2.2 환구시보 속 국제관계⁵⁾

2.1.1 한중 관계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고 살펴본 것은 바로 한중 관계에 관한 기사다. 한중 관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사드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선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의 약 9개월간의 기사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對韓 기사 중 사설이나 논평, 중요 기사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니 90편 정도였다.⁶⁾ 한국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사드,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사건, 박근혜 탄핵, 문재인 새 정부 출범, 한중 경제 협력 등에 관한 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논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평형 관계를 경쟁 구도로 바꾸고, 오히려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드의 X-BAND 레이더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중국의 상해, 천진, 대련 등의 군사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최고급 기술로, 자신들의 군사 정보는 물론이고 실제로 중국 역시 미국의 공격적 방어 체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주요 논조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미중 관계의 대치 상황을 재현하게 한다는 점 말고도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평가다. 시진핑 정부는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협력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로 정신없는 사이에 2016년 9월 20일 논설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에 대한 발표를 알리면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논평했

5) 환구시보의 2016년 9월~2017년 7월까지의 기사 중 주요 헤드라인 내용은 논문 제3장 끝 표에 정리 후 첨부했다.

6) 논문의 부록 표 참조.

다. 이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 중국은 이미 7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은 군사적, 외교적으로나 유리한 입지인데,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그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것은 중국을 다시 한 번 압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중심에는 미국과 북한이 항상 존재한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되는 총 90여 편의 기사 중 한중 관계에 국한된 기사는 11편에 지나지 않고 내용은 대부분이 한국을 질책하는 내용이다. 하다못해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 내로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한 사건으로 해경이 경고탄을 발사한 것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미쳤다'라는 표현으로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⁸⁾ 롯데에 대한 제재는 응당한 감사(監査)이지 보복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⁹⁾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만 봐서도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24일 기사에는 “한국이 또 초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시끄럽게 떠든다, 재밌나?”라는 헤드라인으로 한중 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중국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감정적 언어를 사용한 표제나 기사 내용은 기사를 접하는 독자를 선동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의 없는 언사가 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기사를 접하는 양국 모두의 감정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가 되며 언론매체로서 그 수위를 보다 완화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환구시보 2016년 9월 20일 논설.

8) 환구시보 2016년 10월 10일 제3면 기사.

9) 환구시보 2016년 11월 23일 논설.

2.1.2 미중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제재라는 미명하에, 미국은 한미 양국 간의 군사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방어체제 역시 구축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이 자신들에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미룬다고 생각한다.¹⁰⁾ 그리고 중국은 한미일과 북한과의 대립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북한 행동에 대한 절대적 책임은 오히려 한국에 있다고 역설한다.¹¹⁾ 무엇보다도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압박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중단이 현재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도 펼치고 있다.¹²⁾ 이와 더불어서 중국은 분석적 태도로 2017년 4월 18일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관련 협력 경계는 어디까지이고 중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규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2.1.3 북중 관계

원래 중국은 북한을 매우 철없는 동생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적대 관계로 갈 수 없는 형제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논조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2017년 3월 논설까지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원인을 한미일의 군사적 연합 관계에 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은 환구시보나 인민일보를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사와 심한 언쟁을 한 바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내 여론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2017년 4월 24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난 언론을 무

10) 환구시보 2016년 9월 12일 1면 기사.

11) 환구시보 2017년 3월 7일 사설.

12) 환구시보 2016년 12월 2일 사설, 2017년 3월 10일 1면 기사.

시해야 한다'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실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면하게 해 주는 조건'을 제시한 2017년 3월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태도, 즉 동력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와 같은 시끄러운 싸움이 제기되었다고 본다.

당분간 중국과 북한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한미일 등이 원하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없으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만 더해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중 관계도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2017년 4월 28일 논설에서도 밝혔지만, 러시아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도 눈에 띈다.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 북한에게는 서서히 핵개발 제재를 풀어주고 직접적으로 북한 지역 개발과 경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중러 관계를 통해서 한미일 연합을 압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함이다.

2.1.4 북미 관계

환구시보는 북미 양자 간 게임의 서막이 열렸다는 표현으로,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양자 간의 외교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2017년 1월 17일 논설에 밝힌 바 있다.¹³⁾ 미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체하고,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직접적인 방어 체제를 갖추므로써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언론들은 미국을 맹비난하고 중국 등의 미온적 태도에 불신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57%의 국민이 세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다.¹⁴⁾ 그래서 사드에 대한 부담금 역시

13) 환구시보 2017년 1월 17일 논설.

한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연합군 군사 훈련 상황은 유지하면서 중국에게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눌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미 관계의 가장 핵심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제재인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군사 동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 확실화되기 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미 관계의 문제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다가도 다시 부메랑처럼 한미군사동맹 문제 앞으로 돌아와 놓이게 되기 마련이다. 즉, 아주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지 않으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고 시간이 길어지면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한국이 가장 손해를 입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2017년 3월 10일 기사에서는 한미연합군은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게만 핵실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연합군 훈련이 지속되자, 급기야는 한미연합군의 훈련은 북한에게는 '참수' 행동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와 더불어서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은 평양의 핵폭탄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2017년 3월 14일 1면 기사와 사설로 각각 나눠서 그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환구시보의 사실과 논설의 논조는 모두 강경한 편이다.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매우 확실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실과 연구원들의 글이 대다수이다.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한국에 대해서는 비난의 어조, 미국에 대해서는 억울함의 표명, 북한에 대해서는 포기설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계에 대한 재고를 표방함으로써 다자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논조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문제이고, 여기에 개입하는 미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14) 미국 PEW RESEARCH CENTER, 2016년 5월 5일 발표.

로 동참하면서 중국 또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제4차 핵실험 시기 이후 중국 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기사의 특성

3.1 시기별 특성

약 10개월간의 기사 내용을 통해 그간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의 주요 사건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크게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제5차 핵 실험 이후 사드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 제5차 핵실험 이전에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기에 다시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해서도 사실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핵실험 저지에 있어서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해결할 방안이 따로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둘째, 박근혜의 탄핵안 가결과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사건에 관한 부분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보도는 하되, 실질적으로 사실이나 논설에서 비판하는 글을 찾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번 한국의 박근혜 탄핵은 사실 국민의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사안인데도 중국의 주요 매체에서는 시위 현장의 사진이나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기사화됐지만, 오히려 박근혜의 공소 사실보다는 사적인 가정사 위주 보도로 한때 동정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셋째,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한 내용이다.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해를 침범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규탄 받아야 할 일이다. 비록 한국 해군과 해경의 저지를 통해서 중국 국민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전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의 실책만을 부각했고 그것을 매우 감정적이고 예의 없는 어투로 일관하고 있다.

마지막 넷째, 2017년 5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 관한 내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필요한 민주당 의원석 수까지 고민한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의 사드 반입 은폐 정황을 포착하면서 자세한 진상 규명에 나서게 된 사실을 연일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4강 외교를 통해서 한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는 어조의 논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전처럼 독설을 날리거나 사설이나 논설에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주요 인사들도 한국 정부와의 갈등 구조가 중국 경제 등에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조언하는 것을 보아서도 현 정부와의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 전제는 바로 사드 배치 철회에 있다는 것도 주요한 난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런 환구시보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적나라한 불만을 어떻게 풀어주고 관계를 개선해야 할지 고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¹⁵⁾

www.kci.go.kr

15) 환구시보 2017년 6월 8일 사설.

3.2 논조의 변화

3.2.1 새 정부 출범 전후의 논조 변화

약 10개월간의 환구시보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기사의 논조 변화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환구시보의 한국에 대한 논조는 비교적 부드럽고 희망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좀 더 자세히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미국 국무부 장관 틸러슨(Rex Wayne Tillerson)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중국의 금융 기구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2017년 3월 17일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논조에 치중했다면, 이때부터는 중국 스스로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 미국은 결국 중국에게 금융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동력을 차단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표방한다. 북한을 맹비난하고 북한 포기설까지 중국 내에 대두될 만큼 서로 맹렬하게 싸우게 되는데 당분간 이러한 어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과의 대립각이 세워지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을 인지하면서, 북한 변경 지역에 대한 군사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되 만일을 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2017년 3월 21일 논설을 통해 제기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논조가 눈에 띄게 변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이다. 사실 시진핑 중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친분을 사랑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반대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한중관계의 불투명성이 대두되고 그

책임을 새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햇볕정책을 내세워 관계를 유지했던 참여정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이 광주 5·18 추모식에 참석하고 ‘금지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것을 기사화 하면서 북한에게 당금을 주고 호의를 보일 수 있는 서광이 비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¹⁶⁾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논의하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비교적 온화한 표현으로 일관된 것을 헤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사드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환구시보에서 보이는 중국의 논조는 사드 배치를 처음 발표했을 때 보인 한국과의 첨예한 대립 관계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하다.

3.3.2 논설위원의 논조

환구시보의 사설 부분을 보면 외부 논설위원들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논평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사드, 한중 관계, 혹은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의 관계에 대해 논평을 쓴 세 명의 논설위원의 논조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 단지강(單志剛)은 홍콩강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으로 주로 한중일 삼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환구시보 논단에 글을 남기고 있다. 그는 2016년 10월 27일과 11월 23일 논단에서 한중일의 경제 협력과 FTA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3일에는 일본의 매체가 한중 관계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논조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한중 관계에 대한 개입을 자중해 줄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양국의 외교 문제, 사드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생각을 논평으로 남긴 바 있다. 이는 모두

16) 환구시보 2017년 5월 23일 제16면 기사.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의 관망과 방향 제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왕준생(王俊生)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전세계 전략연구원이자 주변국전략연구실 주임으로 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평을 환구시보에 올렸다. 그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있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한 어조로 밝힌 바 있다.¹⁷⁾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제재 역시 사드 배치 철회가 우선이지, 현재 조급해 해도 소용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셋째, 왕해운(王海運)은 중국국제전략학회 고급고문으로 2017년 3월 21일에 중국은 전쟁에는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평을 게재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왕효파(王曉波) 연변대학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교수가 2017년 3월 7일 초점화제(焦點話題)에 사드에 대한 대응 3대 중핵전략에 대해 글을 쓴 것이 있다. “결사의 각오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제재를 한반도에 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의 연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최고 수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사 중에서는 2017년 6월 29일에 우리나라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李熙玉)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미국 조기 방문 전략을 분석한 글을 신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1) 환구시보의 사드 관련 기사(2016년 9월 ~ 2017년 7월 31일) 중 헤드라인 정리

날짜	분류	표제
20160912	1면	미 국방장관 '북한 핵 책임'을 중국에 미루다
	사설	북한 핵실험 '중국 응당 책임 있다'는 말은 '소리

17) 환구시보 2016년 10월 15일.

18) 환구시보 2017년 4월 7일.

날짜	분류	포제
20160920	사설	한미일의 북한과의 충돌, 중국은 막을 수 없다
	논설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20160926	1면	한국 매체가 사드 배치 지역 이미 결정했다고 발표
20161010	3면	한국 해경선이 중국 어선과 부딪혀서 침몰함
20161012	사설	중국어선에 발표를 허락한 한국 정부 미친 것인가?
20161015	논설	한미 핵 배치는 위급함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만은 아니다?
20161027	논설	우리들은 일본과 한국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
20161123	논설	한일 양국이 군사합작의 '(판도라의) 마술 상자'를 열다
	3면	한국은 롯데 불시 감사가 사드 보복이라고 여긴다
20161203	사설	한국의 북한 추가 제재는 안보리 결의 사항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논설	일본 매체(산경신문)가 한중 관계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20170107	사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다
20170117	논설	미국과 북한 (양국의 외교) 게임의 서막을 열다
20170227	토론	무핵화는 한반도 평화 안정의 전제와 보장이 우선
20170302	사설	중국이 한국만 징벌하고 북한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헛소리
20170304	1면	'여행금지령'에 여론이 들끓다. 중국 보복으로 '한국이 근심이 가득함'
20170307	사설	남북한과 미국에 솔직한 쓴 소리를 하다
	焦點話題	사드 문제에 반격할 때는 '組合拳: 잘 짜여진 대책'을 써야 한다
20170310	1면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지속하면서 북한에 먼저 양보를 요구하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동력 차단' 제의
20170310	사설	미국과 한국은 고집 세우지 말고, 王毅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20170311	사설	한국이 대선을 맞이해서, 외교 문제는 얼마나 큰 파급, 진폭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20170314	1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침수행동'이다
	사설	미한대군의 압박은 평양 핵폭탄을 자극할 수 있다
20170317	1면	미국 Tillerson, 미국의 북한정책 실패 인정, 중국 금융기구 압박
20170321	사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논설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전쟁에는 대비해야 한다

날짜	분류	표제
20170407	논설	사드 해결 안하면 한국 기업 조급해 해도 소용없다
20170412	논설	북핵 문제 책임의 균등 할당, 평양 동력 정지 가능
20170413	논설	북한 핵 문제 결판을 낼 때가 왔다, 평양에 브레이크를 걸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
20170413	논설	조선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이 도와주면 위험하지 않다
20170417	논설	북한이 대항의 의지를 시사했으나 발사 즉시 폭발해서 쓸모없게 되었다
20170418	논설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관련 협력 경계는 어디까지이고 중점은 무엇인가?
20170419	사설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데 한국 역시 책임이 있다
20170422	사설	워싱턴이 중국의 철강 산업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필시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20170424	사설	조선중앙통신사가 중국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나 중국은 계속 무시해야 한다
20170425	사설	한 발 물러서면 광활한 바다와 하늘이 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이다
20170426	사설	미국은 방망이만 휘두르지 말고 북한에게 당근도 좀 줄 필요가 있다
20170426	사설	러시아는 북핵 문제로 중국에 원한을 품는 건가?
20170428	논설	중국과 북한 관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3면 뉴스배경	한미 수일 내 사드 배치 시작
20170429		북한 미사일 발사 거듭 실패
20170508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하리스의 표현은 황당하다
20170509	16면	대한민국 대선 5자 대결
20170510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관계 개선에 힘써주길 희망한다
20170511	사설	문재인은 한국의 독립외교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20170511	초점화제	한국내 정치와 외교 문제가 모두 곤경에 빠져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 파국을 어찌할 것인가?
20170512	1면	시진핑과 문재인인의 전화 통화
20170512	관찰자	북미 밀담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날짜	분류	표제
20170513	사설	한미일 '일대일로' 협력회의 참석 예정, 일대일로에 대한 명성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중국은 응당 한국과 더욱 대화를 통해서 사드 반대 의지 표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8면	한국의 새 대통령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20170517	초점화제	문재인의 중한관계는 '변하고 있다'
20170518	사설	중국에 한국특사가 왔지만, 한국은 중국이 사드를 수용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20170518	16면 중요기사	문재인 '4강외교' 정식 가동
20170519	1면	한국 특사 '상호 신뢰'와 '성의' 강조
20170519	2면 뉴스배경	문재인 '금지곡' 518 추모식에서 불러
20170523	16면 중요기사	한국 신 정부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북한에 호의를 보이다
20170524	관찰자	사드 문제로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다
20170524	16면 중요기사	박근혜 초췌하게 범정에 나와서 18개 항목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
20170531	3면 뉴스배경	문재인 분노, 청와대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 한국 국방부 발사대 4기 추가 비밀 반입 상황 포착
20170601	16면	사드 비밀 반입 은폐 추문은 한국 국방부에서 조장한 것
20170608	사설	문재인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충하려고 한다
20170610	논단	사드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떤 오류한 이치가 있는가?
20170621	사설	미국대학생 사망, 미국의 북한 정책에 있어서 시련으로 당치다
20170622	1면	중미 고관들이 외교 안전을 논하다
	사설	누군가 북핵 문제로 중미 관계에 함정을 파고 있다
20170623	1면	중국과 미국의 대화가 다방면의 의심을 없애다
20170624	논단	문재인의 '황등' 책략 성공하기 어렵다
20170629	越洋視線	문재인 이렇게 빨리 미국을 방문한 전략 분석
20170704	사설	중미 관계 문제가 중미 관계의 견고함과 안정을 두드러지게 했다.
	관찰자	일차 문재인과 트럼프 회담(문특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끌어올릴 수 없다

날짜	분류	표제
20170705	사실	중러 연합 의견, 북미 모두 열심히 경청해야 한다
20170707	사실	객관적으로 북중 1분기 무역수자를 해독해야 한다
20170714	사실	한국을 타산지석 삼자. 미국 비위 맞추기 쉽지 않다.
20170724		한국이 또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시끄럽게 떠든다, 재밌나?
		북한 노동신문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기준을 6400km라고 발표했다
20170724	논단	한국 햇볕 정책에 안개가 끼다
20170726		민간 외교가 중미 협작을 촉진시킨다
20170731		한국 매체는 사드가 더 많은 반격을 가져올까 걱정하고 있다

4. 결 론

위와 같이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환구시보는 특히 다양한 국제 관계를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보다는 다자간의 문제로 해석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일 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관계 그 사이에서 모두 중국의 입장과 대응 태도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국적 마인드로 중국의 자국 이익을 대변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환구시보는 중국의 국제관계 정책에 있어서도 학계 인사들의 논조를 빌어 최대한 중국 위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환구시보의 기사를 접할 때, 특히 헤드라인이나 대외 인사들의 글이 자극적임에도 여과 없이 전달되어 양국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환구시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여론에 반영하고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체결한 군사 동맹 관계이다. 그리고 중국과는 한국이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상태이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동맹, 동반자 관계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핵화를 지원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단순히 한미 군사 동맹 관계가 우선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 관계나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에서의 논리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무조건 반대를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역시 아니라고 본다.

한창 사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사드는 중국을 겨누는 미국의 칼춤'이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2016년 4월 시진핑 주석도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사드 배치는 중국에 의해 중요한 국제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¹⁹⁾ 어찌면 이것은 그간 간과하고 있는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호형호제 관계인만큼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북한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는 대립할 수 있는 모순적인 협력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는 몇 년째 계속 논의되고 있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反韓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흔적이 다수 보이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견고히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결정으로 인한 변화의 책임이 모두 한국

19)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6년 여름호, pp.33-35.

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권력을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면을 세워 주면서 무엇보다도 한국에게 좀 더 유리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환구시보의 사드 관련 및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관계 기사를 통해서 사드 문제 등에 대한 환구시보의 논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환구시보는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어조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중국 정책(對中國政策)의 긍정적 효과와 관계 개선 의지 등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객관적 사실 보도에 입각하고 온화한 어조의 기사 위주로 전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을 이어올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함께 사드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환구시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보다 협조적이고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는 어조가 높아졌고 한중 관계는 상생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서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어질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환구시보의 한중 관계에 대한 논조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 유상철, <중국 환구시보의 정치학>, 《관훈저널》 118집, 2011월 3월.
 _____, <언론인이 본 중국언론: '환구시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브리프》, 2011년 Vol.6.
 주강훈·박응석, <비판적 담화분석의 새 지평 : 비판적 은유 분석-환구시보의 북핵 관련

- 시설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2015년 45집.
-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新亞細亞》, 22권 4호 (2015년, 겨울).
-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2016년 제25권 1호.
- 나영주,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제67호.
- 정육식·이용승, <사드와 한국의 국익>, 《민족연구》 67호.
-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23(1), 2016.3.
-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6년 여름호.
-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25(1), 2016.6.
- 편집부, <한·미 양국, 자위적 방호조치로서 '사드(THAAD)' 배치 결정 - 북한 핵·비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이 우선,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 확정>, 《국방과 기술》 450집, 2016년 8월.
- 박현옥,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전략과 한반도 사드 배치 유용성>, 《군사논단》 제 87호(2016년 가을).
- 박광득,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16(4), 2016.11.
- 손대권·안슬기,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36권1호(통권 72집), 2017.
- 김현철,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매일신문, 영남·경북 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2.
- 趙博, <韓國의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2.
- 환구시보(環球時報) 環球網 www.huanqiu.com
參考報 www.ckxxbao.com

< Abstract >

A Study on THAAD through 《環球時報》(Global Times)

Kwon, Eunyoung

Global Times(環球時報) is The People's Daily-affiliated mess media organization, but it is the representative newspaper company that has more freedom from the control of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variou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t tries to view matters multilaterally rather than from simpl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n addition, it mostly represents China's own interest patriotically. In this manner, it seems to play a role as a mess media in suggesting China centered policy directions as possible by citing scholars' opin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cy.

While THAAD was being discussed, Wang Yi, the Foreign Minis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rongly opposed to it by saying 'THAAD is the US's sword dance towards China'. Xi Jinping,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lso spoke out against THAAD at a summit meeting right before Nuclear Security Summit held in Washington DC. Therefore, the THAAD deployment became a very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 by China as well as one of agendas abou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issue might be a chance to consider the fundamental limit of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which was overlooked. China is very close to North Korea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ons. China is the only country that can control North Korea, but it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it is a contradictory cooperater that can be opposed to us.

The issue of THAAD has been discussed for years, and it can't be denied that it is an important key word of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China often

seems to encourage anti-Korean sentiment through provocative headlines of Chinese Global Times, but the country understands that making stro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s more important for the country's interest. However, China focuses on maximizing its power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rough continuous pressure by emphasizing that South Korea is responsible for changes due to South Korea's decision in the matters of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find solution that is more favorable to us while keeping China in countenance without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positive effect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s China are currently expected, so the tone of Chinese Global Times about the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expected to be more positive.

Key words: Global Times(環球時報), THAAD, China-Sou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Chinese media, Editorial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9. 12.	2017. 09. 18.	2017. 09. 30.

